

# 새 옷 입은 호랑이들 “더 높이 뛰겠습니다”



박찬호

한승택

유승철

## KIA 선수단, 챔스필드 실내 연습장서 프로필 사진 촬영 전광판 소개·팬북 등 활용...“마음이짐부터 달라지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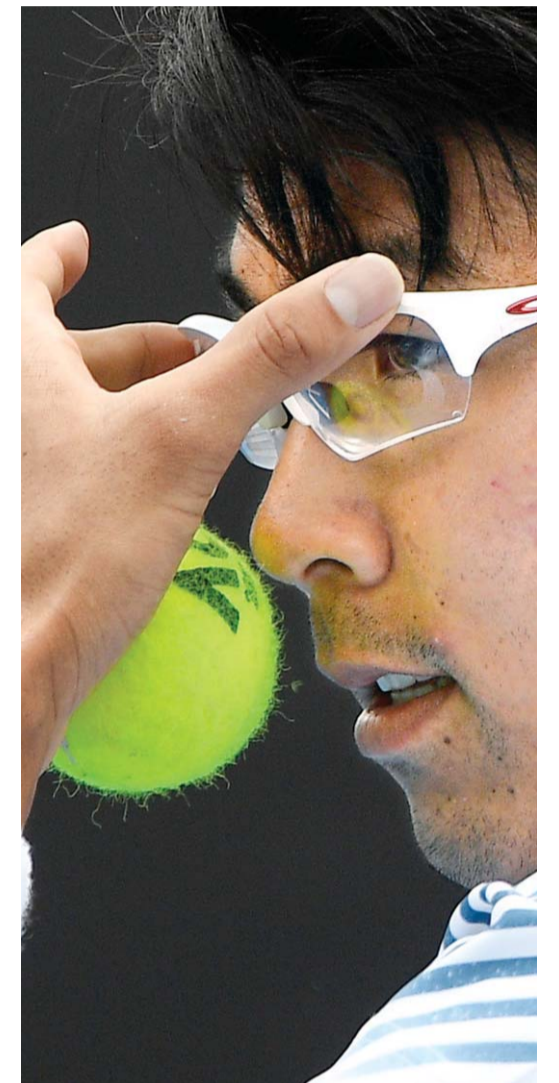
‘호랑이 군단’이 카메라 앞에 서서 새 시즌의 각오를 다졌다. KIA 타이거즈는 16일 챔피언스필드 실내 연습장에서 새 유니폼을 입고 프로필 사진 촬영을 했다. 팬북 등에 활용될 사진을 찍은 선수들은 전광판에 소개될 영상 촬영에도 나서 공을 던지고, 치는 동작을 하기도 했다. 최형우를 1번 타자로 해 시작된 촬영은 오는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새 번호, 새 이름의 유니폼을 입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이들이 눈에 띈다. 지난 시즌 KIA 마운드의 ‘셋별’로 빛난 유승철은 40번에서 21번으로 번호를 이동했다. “야구 처음 시작했을 때 구레에서 순천으로

통학하면서 신문을 사서 봤었다. 신문에 한기주 158km, 159km 이런 기사가 늘 1면이었다. 당시 한기주 선배님 번호가 10번이었다. 10번을 달고 야구를 잘하기도 해서 애착 있는 번호다. 10번을 노렸는데 (황)대인이 형이 단다고 해서 못 달았다”며 웃은 유승철은 “1번, 11번, 21번 등은 투수들이 동경하는 번호다. 21번을 달기로 하고 (21번을 썼던) 박정철 코치님에게 가서 의지를 이어받겠다고 했다. (우상이었던) 윤석민 선배님이 달기도 했던 번호라는 점도 컸다”고 21번을 선택한 이유를 언급했다. 황대인은 입대 전에 사용했던 10번을 달고 예비역으로 복귀 시즌을 보내게 됐다. 상무 입대 불발로 다시 시즌을 보내기로 한 김석환은

10번에서 36번으로 번호를 옮겼다. 또 다른 예비역 박찬호는 4번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박찬호는 “군대 가고 나서 유니폼이 바뀌었다. 새 유니폼을 처음 입어본다. 기분이 새롭다”며 “4번은 학창시절에 쓰던 번호다. 익숙한 번호를 달고 뛰게됐다”고 웃었다. KBO리그 1호 독도 경비대원인 윤완주는 번호는 물론 이름까지 바꿨다. ‘9번 윤해진’이 윤완주의 새로운 이름이다. 지난 가을 경찰청에서 제대한 뒤 44번을 달고 복귀했던 사이드암 박준표는 올 시즌 31번 유니폼을 입는다. 44번은 포수 한준수에게 넘겨졌다. 백용환과 신범수 두 포수도 각각 12번과 22번을 새 번호로 선택했다. 19번을 썼던 이민우와 55번을 달았던 전상현은 번호를 맞교환했다. 27번과 6번으로 통했던 이명기와 최원준도

새 번호로 2019시즌을 연다. 이명기는 61번을 새 번호로 선택했고, 최원준은 군복무를 위해 떠난 심동섭의 1번을 물려받았다. 6번은 홍재호가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시즌 부진했던 김세현은 50번으로 분위기가 전환에 나섰다. 이외에 황윤호(2번), 이인행(15번), 이창진(13번)도 새 번호가 쓰인 유니폼을 입고 프로필 촬영을 마쳤다. 기대주인 ‘고졸 루키’ 좌완 김기훈은 20번을 달고 프로 데뷔를 준비하게 됐다. 20번 유니폼을 입은 김기훈은 “카메라 앞에 서니가 연예인이 된 것 같다. 새로운 경험이었다. 재미있었다”며 “오를 촬영한 영상이 전광판에 나온다는 상상을 하니 설렌다. 좋은 환경과 시스템에서 즐겁게 훈련을 하고 있다. 전광판에 내 소개 영상이 나올 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훈련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32강 기다려!”



## 정현, 오늘 호주오픈 2회전 세계 50위 에르베르와 격돌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5위·한국체대)의 호주오픈 2회전 경기가 17일 오후 1시(한국시간) 안팎에 시작할 전망이다.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조직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대회 나흘째 17일 경기 일정에 따르면 정현과 피에르-루이 에르베르(55위·프랑스)의 남자단식 2회전 경기는 멜버른 아레나의 세 번째 경기로 예정됐다. 이날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여자부 경기로 시작하며 여자단식 두 경기가 끝나면 정현과 에르베르의 경기가 이어진다. 여자단식의 경우 1시간 30분이 조금 넘게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란 정현의 경기는 오후 1시 안팎에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단 앞에 열리는 경기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거나 3세트 접전으로 이어지면 정현의 경기 시작 시간은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 정현과 에르베르의 경기가 열리는 멜버른 아레나는 호주오픈 메인 코트 가운데 하나다. 이날 멜버른 아레나에 배정된 경기는 첫 경기가 카롤리나 플리스코바(8위·체코)-매디슨 브렌글(88위·미국), 이어 매디슨 키스(17위·미국)-아나스타시야 포타포바(89위·러시아)의 여자단식 2회전이 진행된다. 세 번째 경기가 정현-에르베르의 남자단식 2회전이 배정됐다. 한편 2회전 상대인 에르베르는 1991년생으로 정현보다 5살이 많고 키는 188cm로 똑같다. 정현과 같은 오른손잡이로 단식 개인 최고 랭킹은 지난해 50위다. 투어 대회 단식 우승 경력은 없지만 준우승이 두 차례 있고, 복식에서는 메이저 대회 남자복식에서 세 번이나 우승한 경력이 있다. 2015년 US오픈을 시작으로 2016년 윌버턴, 지난해 프랑스오픈 등에서 니콜라 마뒤(프랑스)와 한 조를 이뤄 우승을 차지했다. 현재 복식 세계 랭킹 12위, 2016년에는 2위까지 올랐던 복식 전문인 면이 있지만 단식에서도 2016년 윌버턴, 2018년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3회전까지 진출하는 등 쉽게 볼 상대가 아니다. 에르베르는 정현이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처음 만났던 상대이기도 하다. 정현은 2014년 US오픈에서 처음 단식 예선에 출전했고, 본선 데뷔전이 2015년 윌버턴이었는데 1회전에서 에르베르를 만나 2-3으로 아쉽게 패배, 이번에 설욕의 기회를 잡았다. /연합뉴스

## 야구 선수들도 경조사 휴가 쓴다

### KBO 리그 규정 심의...미세먼지·폭염에 경기 취소 여부 등 논의

프로야구 선수들도 시즌 중에 경조사 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KBO가 1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9년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KBO 리그 규정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실행위원회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신설해 직계 가족 사망 또는 자녀 출생시 선수가 5일의 경조사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조사 휴가 사용 시 엔트리는 말소되지만, 엔트리 재등록 기간인 10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현역 선수로 등록이 가능하다. 또 휴가 기간에도 등록일수는 인정된다. 최근 주요 이슈인 미세먼지와 관련한 규정도 세밀화했다. KBO 리그 규정에 미세먼지 특보 수치를 명시하고, 미세먼지 경보(PM2.5(초)미세먼지) 150 $\mu\text{g}/\text{m}^3$  또는 PM10(미세먼지)가 300 $\mu\text{g}/\text{m}^3$ 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시 해당 경기운영위원이 지역 기상대에 확인 후 구단 경기관리인과 협의해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선수단과 관객의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경

보 외에도 강풍, 폭염, 황사 경보 발령 시에도 경기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경기 준비와 팬들의 관람 편의를 위해 기상 상황으로 인한 경기 진행 여부는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결정하도록 했다.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신설된 ‘더블플레이 시도 시 슬라이딩 규정’은 비디오판독 대상에 추가했다. 구단당 정규이닝 2회, 연장전 1회 포함 최대 3회까지 가능했던 비디오판독은 심판의 재량으로 경기당 1회 추가된다. 공인규 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을 위해 한 이닝당 2개로 제한됐던 투수의 새 공 교환은 3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2019년 KBO 퓨처스리그는 북부리그(SK, LG, 두산, 히어로즈, 한화) 230경기, 남부리그(KIA, 롯데, NC, 삼성, KT, 상무) 300경기씩 총 530경기가 치러진다. 경찰야구단은 경기 수를 축소해 북부리그 팀과 30경기, 남부리그 팀과 18경기 등 총 48경기를 치른다. 한편 드래프트 제도 개선 여부는 다각적인 검토와 조사 등을 통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지지부진’ 프로야구 FA 협상

### 총액 상한제·등급제 등 논의 소강 상태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제도 개선 협상이 언제쯤 제 궤도에 오를까. FA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KBO 사무국을 비롯한 각 구단과 프로야구 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가 접점을 찾을지 시선이 쏠린다. KBO와 선수협회는 지난해 FA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KBO가 FA 총액 상한제(4년 80억원), FA 등급제, FA 취득 기간 1시즌 단축, 부상자 명단 제도 도입, 최저연봉인상 검토안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책을 선수협회에 작년 10월 제안했다. 그러나 선수협회는 포스트시즌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FA 제도 변경안을 논의하고 결정할 시간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며 KBO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 와중에 선수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KBO를 FA 제도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KBO와 각 구단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16일 선수협회와 KBO 사무국에 따르면, 선수협회는 작년 말 간접 경로로 KBO에 FA 개선안을 수정해 다시 제안했다.

선수협회가 FA 상한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게 수정 제안의 골자다. 다만, 상한 규모와 관련해선 선수협회와 KBO의 설명이 엇갈린다. 선수협회 측은 옵션을 뺀 보장금액 80억원을 상한액으로 제시했다고 하나 KBO 측은 구체적인 상한 조건에 말을 아꼈다. 선수협회가 KBO와 FA 제도 개선 논의를 올해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달리 KBO와 각 구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어 협상 소강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장운호 KBO 사무총장은 “KBO 사무국과 프로 10개 구단이 1년을 준비한 FA 제도 개선안을 선수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선수협회와 다시 FA 제도 개선 협상을 하더라도 올해 경제 상황, KBO리그 마케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선웅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좀 더 나은 FA 제도를 만들고자 언제든 KBO와 협의할 준비가 됐다”며 “KBO 사무국과 프로 구단이 계속 논의를 피한다면 이를 압박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